



전주교대-제일전북도민회, 협약 체결

전주교육대학교는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제일전북도민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병준 총장 최병연 교육대학원장, 제일전북도민회 천현사 회장, 전희배 부회장, 김원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제일동포 청소년의 한국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예비교원 교육실습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병준 총장은 "대학과 제일전북도민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활발히 상호 교류하여 전북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일전북도민회는 1964년 도쿄를 중심으로 호남회를 시작으로 1994년 현재의 제일전북도민회로 개칭했으며, 전북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고향 발전을 위해 기여해왔다. /장은성 기자



서울 광진구 사우회, 무주군에 후원물품 전달

무주군은 10일 서울 광진구 사우회(회장 한수창) 회원들이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리본과 세탁세제 등 12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수창 회장은 "우리 사우회는 광진구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그동안 광진구와 광진구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에 앞장서 왔다"라며 "회원들의 마음이 무주군에도 잘 전달이 돼서 무주군과 광진구가 한층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노일 광일토건환경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 기부

남원시는 박노일 광일토건환경 대표가 지난 9일 시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박노일 대표는 남원시 송동면 출신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광일토건환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시초경제인 협의회장에 취임해 왕성하고 있다. 박노일 대표는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뿐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온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를 희망한다"고 얘기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부금을 알차게 쓰기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남원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농기센터,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노동력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원활한 농작업 지원을 위한 농촌 일손돕기를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진행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50여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섰으며, 금지면의 포도, 블루베리 재배농가에서 결순 및 덩굴손 제거, 제초매트 설치 및 일습기 작업 등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남원=김기두 기자

‘후방산란 X-선 검색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안근영 전북대 대학원생,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우수발표상

전북대학교 안근영 대학원생(플라즈마및전자빔응용공학과·지도교수 서희)이 최근 부산에서 열린 2023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학회에서 안근영 대학원생은 "수하물 검색을 위한 후방산란 X-선 검색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연구 성과를 인정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유기물에 민감한 후방산란 X-선 보안검색 장비의 시작품을 구축하고 영상을 통해

불법 물품의 탐지 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향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상용품 수준의 후방산란 X-선 보안검색 장비를 개발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영상을 획득하여 보안 검색기의 성능예측 및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근영 학생은 "후속 연구를 통해 후방산란 X-선 보안검색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청의 지원을 받아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우리동네 젠더스쿨 2기 진행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10일 남원 산내여성농업인센터와 공동으로 우리동네 젠더스쿨 2기 1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젠더스쿨은 지난해 임실 및 부안 지역에서 1기 운영한 사업으로, 성평등 활동을 펼치는 도내 단체가 지역 실정과 주민에게 맞는 교육, 워크숍 등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마을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있는 마을 이장을 비롯한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함양 및 성평등 의식 제고 등 살기 좋은 농촌마을 실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한편 오는 8월과 9월에는 부안군의 2개 여성농업인센터와

함께 농촌지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함양 워크숍 및 성평등 활동을 진행해 차별없는 성평등한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동네 젠더스쿨 2기 2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정희 센터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지역사회에 성평등 실현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우리동네 젠더스쿨은 성인지 함양을 통해 농촌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기회가 적은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도내 지역별 성평등 격차 완화 및 성평등한 문화 정착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 물품 지원

임실군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9일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 124가구에 효도 물품(임실사랑상품권 200,000원)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사업은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지원된 가구는 730가구 1억3800만원이다. 올해도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 124가구에 가정방문하여 효도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사업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에 효도 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95세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사는 가구를 방문하여 "교령의 노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면서 효행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 군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어르신을 더욱 공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우석대 교수장학회, 제자사랑 장학금 전달

우석대학교 교수장학회가 제자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9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은 남천현 총장과 박진희 교수장학회장, 장학금 수혜 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날 남천현 총장은 재학생 4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며 "제자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스승의 뜻을 깊이 새겨 학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희 교수장학회장(간호학과)은 "개교 초부터 교수님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임실N펫스타 반려동물 패션쇼서 대상

전주기전대학 Heal-being 농생명 ICC는 지난 5~7일 열린 '제38회 의경문화제'와 함께하는 2023 임실N펫스타 문화축제 '서 반려동물 패션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친화적 인식을 확산하고, 반려동물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임실군의 반려동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열렸다. 이에 기전대 Heal-being 농생명 ICC에 해당하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패션쇼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 마음 △반려견 장난감 만들기 △반려견 진드기 퇴치제 만들기 △반려견 공작 체임 부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보공유와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 김원 교수(반려동물과는)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대학 특화 분야의 우수성을 확산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김영록 김제경찰서장, 노엑시트 릴레이 캠페인 참여

김영록 김제경찰서장이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김제시민에게 마약범죄의 예방을 당부했다.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지난달 28일 경찰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출'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널리 퍼뜨리고자 원로배우 최불암을 1호 참여자로 선정해 올 연말까지 이어가는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캠페인 이미지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해 사회관계망(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면 된다. 다른 사람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목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목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김영록 김제경찰서장은 "마약은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회 악이라고 표현해왔다. 우리 김제경찰서에서도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김제경찰이 범국가차원에서 헤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다음 주자로는 김제시장과 김제시 시청장을 지목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유봉현 무주경찰서장, 마약범죄 온라인 캠페인 참여

유봉현 무주경찰서장이 10일 무주군 첫 주자로 마약범죄 온라인 릴레이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실시됐으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방식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목받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은 뒤 후속 주자를 지명할 수 있다. 첫 주자인 유봉현 서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황인홍 무주군수,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유봉현 서장은 "전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속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성수 부안경찰서장, 'NO EXIT' 동참

박성수 부안경찰서장이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으로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마약 적절 공감대 확산 및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미지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다음 주자를 지목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면 된다. 박성수서장은 "절대 시작해서는 안되는 마약은 한번 발을 딛으면 나올 수 없는 출구 없는 미로와 같다"며 "부안군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마약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